

잘못 발견시 즉각 시정 요구해야

‘사이버 불교정보 오류’ 막을 길 없나?

인터넷을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 바다 속에는 쓰레기도 많다. 음란물, 스팸 메일을 비롯해 고의적으로 남을 헐뜯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엉터리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불교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정보를 사이트에 올려놓아 방문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악의적으로 불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유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포교사단이 지난 1년간 2000여 건의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잘못된 불교 정보거는 정도 난무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글 등으로 잘못된 정보 무한 전파

인터넷은 모든 서비스를 한국에서 관리 운영하는 호스트 컴퓨터가 없고 이를 통제하는 조직도 없다. 접속은 물론 누구나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고 이 모든 웹페이지들이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상공간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웹페이지의 생성은 폭발적이다. 현재 전세계 웹의 규모는 표층웹이 40억 페이지, 심층이 5500억 페이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 의회도서관 장서의 50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한 하루에 700만페이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매일 150만페이지 이상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웹페이지의 소멸도 엄청나다. 지나친 상업화나 음란물이 넘쳐 정착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웹페이지들이 네티즌들로부터 외면 받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버 용량 문제 등으로 관리자 스스로 삭제하고 있어 웹페이지의 소멸 속도도 폭발적으로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는 웹페이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생성, 소멸, 방치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잘못된 불교정보들은 네티즌들에 의해 편글(동일한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겨놓는 행위)로 무한 전파가 되고 있어 문제다.

최근에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전파가 더 빨라지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다양한 쓰레기 정보들이 유통되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유행과 사례

잘못된 불교정보의 유형은 크게 악의적으로 불교를 비방하는 경우나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왜곡된 불교정보를 전파하는 경우, 운명 상담 등 비불교적인 내용이 상업화되며 불교를 표방하면서 나타나는 피해 등이다.

인터넷이 지금처럼 생활화가 되기 이전에는 주로 타종교인에 의한 악의적인 불교 비방 정보가 많았다. 안티불교사이트를 개설해 고의적으로 불교정보를 왜곡해 유포하는 것이 대표적인 행위였다. 네티즌들의

상속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면서 지금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검색엔진 엠파스에서 안티불교라는 주제로 검색을 해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안티불교사이트(http://www.geocities.com/onias77/) 바로가기 링크다. 이 사이트 서버는 미국에 있어 정보 폐기 등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태. 클릭해 보면 승려들의 범죄 기사를 모아 한 페이지로 소개하고 있다. ‘사찰 주지가 15년 내 연녀 살해’, ‘승려가 액땀한다며 돈받고 부녀자 강간’ 등 19개의 기사를 올려 놓았다. 읽는 이로 하여금 불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고의성이 가득하다. 이 같은 범죄 기사는 불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네티즌들에 의해 편글로 웹사이트 의 게시판, 블로그, 카페 등에 무제한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사이버 웹블로 가상공간을 떠돌고 있다.

다음 카페인 안티불교(http://cafe.daum.net/antibuddhism)도 잘못된 불교정보를 유포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한국불교 관련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불교가 싫어질때, 불교의 잘못 / 문제점, 불경과 가르침 상의 오류들, 불교에 바라는, 불교문제의 대안 / 해결책 등 5개의 하부 카테고리 가 존재한다. 그 안에는 ‘중님들아- 스님을 스승님의 준팔이라고 가정하고 물어 보자’, ‘부타의 법을 사이버로 만드는 어리석은 뺨조와 추종자들’, ‘왜 한국불교를 사탄불교, 사이버불교라 규정하는가?’ 등 제목만 봐도 악의적인 불교비방 정보가 가득하다. 이 카페는 5년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에 의해 폐쇄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주조만 조금 바뀔때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불교 비방 정보들은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보다는 왜곡과 훼손을 위해 불교교리를 편집, 각색하고 있어 일종의 사이버 웹블로라고 해도 무방하다.

거나 초심자들은 이 질문과 답을 보면서 부처님이 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잘못된 불교정보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사주, 팔자, 운세 등을 다루는 곳이 불교를 표방하는데서 오는 오해와 왜곡이다. 오프라인에서 점집에 가면 절만(卍) 자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있는 것과 같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스님이 직접 운명 상담을 한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의 행위는 지나치게 상업적이어서 불자들은 물론 타종교인에게까지 돈벌이에만 열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정화라고 밝힌 네티즌은 조계종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8월 21일 자신의 경험담을 올려 놓았다. 조롱박닷컴이라는 곳에 접속해 돈을 내고 사주를 보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비구니스님이라고 했고 부처, 달마도를 팔면서도 평범하고 청빈한 스님이라는 말이 상업적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비불교적인

비방·왜곡·불교이름건 사주 운세 등 문제 심각 포교사단, 7대 포털 모니터링 2000건 바로잡아 사이버 공간서 활동할 포교사 양성 시급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의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지식검색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궁금증을 가진 네티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네티즌들이 답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과 개인간의 질문과 답이 모든 네티즌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정보를 해답으로 올렸을 때는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잘못된 불교정보를 유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속제를 하기 위해 질문을 올린 학생들의 경우 잘못된 불교정보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불교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네이버에 ‘석가모니’를 주제로 검색을 해보면 지식검색에 한 네티즌이 ‘석가모니가 사람인가 신인가?’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부처입니다. 부처는 신과 차이가 없습니다’는 답변이 올라와 있다. 불교를 잘 모르

내들이 버젓이 불교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대목이다.

▶불자 모두 주의의식으로 감시

조계종 포교사단은 2005년 8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포교원의 위탁사업으로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을 개소해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7대 포털의 지식관련 정보코너의 불교정보를 모니터링했다. 홈페이지 및 카페를 운영하는 포교사 50명이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답글을 일일이 검색하며 불교정보의 오류나 왜곡된 내용을 파악하고 각 포털의 오류등록과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바른 불교정보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네이버 1441건, 다음 302건, 야후 61건, 엠파스 68건 등 2천여건의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았다. 또한 자주 질문하는 부처님에 대해 1500여건의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았다. 또한 자주 질문하는 부처님에 대해 1500여건의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았다. 또한 자주 질문하는 부처님에 대해 1500여건의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았다.



삼학 박구원

법 답안을 만들어 포교사들에게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식검색에 상당수 모범 답안이 업데이트 되어 있고 불교단체 사이트의 신행상담코너 등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

포교사단은 올해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은 포교사단내 정보사업팀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포교사단의 활동성과는 가상공간의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을 개소해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7대 포털의 지식관련 정보코너의 불교정보를 모니터링했다. 홈페이지 및 카페를 운영하는 포교사 50명이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답글을 일일이 검색하며 불교정보의 오류나 왜곡된 내용을 파악하고 각 포털의 오류등록과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바른 불교정보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상공간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무한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한두명으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자 모두가 주의의식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잘못된 불교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홈페이지에 수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또한 포교사단 정보화팀과 같이 불교계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가상공간의 잘못된 불교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바로잡는 것도 효과적이다.

포교사단내 정보사업팀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포교사단의 활동성과는 가상공간의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을 개소해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7대 포털의 지식관련 정보코너의 불교정보를 모니터링했다. 홈페이지 및 카페를 운영하는 포교사 50명이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답글을 일일이 검색하며 불교정보의 오류나 왜곡된 내용을 파악하고 각 포털의 오류등록과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바른 불교정보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상공간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무한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한두명으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자 모두가 주의의식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잘못된 불교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홈페이지에 수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또한 포교사단 정보화팀과 같이 불교계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가상공간의 잘못된 불교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바로잡는 것도 효과적이다.

포교사단은 올해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은 포교사단내 정보사업팀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포교사단의 활동성과는 가상공간의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을 개소해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7대 포털의 지식관련 정보코너의 불교정보를 모니터링했다. 홈페이지 및 카페를 운영하는 포교사 50명이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답글을 일일이 검색하며 불교정보의 오류나 왜곡된 내용을 파악하고 각 포털의 오류등록과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바른 불교정보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상공간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무한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한두명으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자 모두가 주의의식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잘못된 불교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홈페이지에 수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또한 포교사단 정보화팀과 같이 불교계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가상공간의 잘못된 불교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바로잡는 것도 효과적이다.

‘서로 모여 부처님의법을 듣고 토론합니다’ 원각사 재가논강(在家論講)

8월 11일 보시(김용철 교수)편을 시작으로 인욕(이순규 교수), 선정(이호근 법사), 정진(박건주 교수), 지혜(이희재 교수)까지 많은 불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인 지계(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편에서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아우르고 앞으로 바른 수행생활을 하는 의미로 보살계수계식도 함께 할 예정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주 제 : 재가불자 수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불기2550년(2006년) 8월 11일 ~ 9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9시)
- 대 상 :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 논주(論主) :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순규 의학박사, 이호근 법사, 박건주 전남대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송광사 율원장 지현스님

- 장 소 : 원각사 대웅전
- 주 최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 후 원 : (주)BBS광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 발제 40분 / 토론 50분 / 토론자 2인(신행단체) / 총 진행: 이종표 전남대 교수

- 보살 수계식 | 동참비 : 2만원
- 장 소 : 원각사 대웅전
- 일 시 : 9월 22일 오후 7시

생전에수재 안내

불기 2550년 음력 7월 윤달을 맞아 원각사에서 살아생전 진 빛, 즉 업을 죽기 전에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인 생전에수재를 봉행합니다.

- 49재 | 입재 : 2006년 8월 05일 토요일 오전 10시
- 회향 :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 매주 금요일 마다 재를 7.7재 일곱번 지내고, 동참비는 1인 10만원, 가족 30만원입니다.

● 영산재 : 초재, 3재, 5재, 막재에 영산재를 봉행합니다.

유등접수

9월 22일 생전에수재를 회향하며 불자들의 서원을 담아 유등 띄우기 행사를 봉행합니다.

- ▶ 장소 : 광주천 ▶ 동참금 : 5,000원

■ 추석 합동제사 (10월 6일, 추석)

집에서 차례를 못지내시는 분이나 평소예 제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영가님들이 계신분들은 원각사에서 추석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 일 시 : 2006.10. 6(음 8.15)금 오전 11시 추석차례
- 동참금 : 영가1위당 5만원

■ 중구절 합동제사 (10월 30일, 음 9월 9일)

불기2550년음력 9월9일 중구절을 맞아 합동천도계를 봉행, 유주무주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받습니다.

- 일 시 : 2006.10. 30(음 9.9)월 오전 10시
- 동참금 : 영가1위당 1만원

접수 및 문의 : 원각사 중무소 (062)223-3168